

##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Career Experiences Effectiv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Kim, Suk Gyun<sup>1)</sup> · Jeon, Yeong Uk<sup>2)</sup>

<sup>1)</sup>Faculty Field Liaison, Dep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Background:** Recently, as social interest in career education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career experience is also being emphasized. However, the influence of career experiences on career development may vary depending 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i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s of career experiences effectiv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thodolog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21 targeting second and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4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32 copie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Findings:**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career experiences effect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eriences effectiv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ut academic achievement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Conclusions:** Effective career experiences has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In particular, if adolescents who perceive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to be low participate in effective career experiences, they can increase the level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the experiences of mastery, and the amount of change is greater than that of adolescents who perceive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s high.

**Keywords:** career experienc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academic achievement

---

**Corresponding Author:** Jeon, Yeong Uk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in building 712, 86, Daehak-ro,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3-4130-7255>

Email: [aramhb@knou.ac.kr](mailto:aramhb@knou.ac.kr)

Received: May, 24, 2022 Revised: June, 27, 2022 Accepted: June, 27, 2022 Publication: June, 30, 2022

##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

김석균<sup>1)</sup> · 전영욱<sup>2)</sup>

<sup>1)</sup>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실습지도평가위원

<sup>2)</sup>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조교수

**배경:**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로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라 진로체험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방법:**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3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는 부(-)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시사점:** 효과적인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업에 대한 성취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효과적인 진로체험에 참가한다면 숙달의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그 변화량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보다 더 클 수 있다.

**주요어:** 진로체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학업성취

\* 이 논문은 김석균의 석사학위논문(2021년 8월 졸업)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만, 이론적 배경, 연구모형 및 연구결과, 결론 및 논의에서 학위논문과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교신저자:** 전영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712호

ORCID: <https://orcid.org/0000-0003-4130-7255>

Email: [aramhb@knou.ac.kr](mailto:aramhb@knou.ac.kr)

**투고일:** 2022. 5. 24.

**심사일:** 2022. 6. 27.

**게재확정일:** 2022. 6. 27.

**발행일:** 2022. 6. 30.

## I. 서론

오늘날 급속한 기술변화는 직업세계와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진로교육의 방향과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 역할과 함께 앞으로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탐색하며, 유연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전략(problem-solving strategies)과 대처행동(coping behaviors)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1]. 이처럼 직업세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인의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에 요구되는 역량과 태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로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이론적 틀/framework)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2], 우연학습이론[3] 및 진로적응력[4] 등이 주목받고 있다[1].

특히, 사회인지이론에서 파생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적 신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로탐색,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 등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5, 6, 7, 8].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해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9].

지금까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청소년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대부분의 진로교육이 진로체험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체험이 진로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0]. 진로체험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진로역량들을 개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11], 다른 진로교육활동에 비해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을 뿐 아니라[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14, 15].

한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사람, 환경 및 행동 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2]. 즉, 진로체험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진로체험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진로에서의 진전(career progress)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진

로장벽(career barriers)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16], 진로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또한 학업성취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성취결과 중 하나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일반화된 자기인식의 단서가 되며, 향후 진로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19]. 즉,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수준은 진로체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는 진로체험의 개발과 효과적 실행을 위해 규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에서 개인과 환경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진로발달에 관한 통합적 모형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현장전문가와 교사에게 효과적인 진로체험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인지이론에서 파생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흥미, 가치, 능력에 기반한 진로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20]. 사회인지이론에서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정해진 형태의 수행을 완수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p.391)”라고 제시하였다[21].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며,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22, 23].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대처행동(coping behavior)을 시작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장애물이나 회피하고 싶은 경험(aversive experiences)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9].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특성(trait)이 아니라 특정한 수행 영역 및 활동에 관련된 개인적 신념이다. 어떤 사람이 기계를 활용한 작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미술이나 음악 활동이나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는 덜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기효능감은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research self-efficacy)’처럼 구체적인 내용 혹은 과업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되어왔다[24].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 및 직업 경로에서의 장면에 초점을 두고 자기효능감을 활용하였다. 즉, 진로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 진로준비, 취업, 직업 적응 또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인지된 능력으로 논의되었다[22]. 특히,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인지된 능력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으로 명명하였다[25].

진로와 직업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혜과 안현의(2012)에 따르면,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효능감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5], 진로준비행동[6, 7], 진로태도성숙[8], 진로결정[26]과 같이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수행 성취(performance accomplishments),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의 네 가지 주요 정보 원천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 2. 진로체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진로체험은 학교 안팎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진로계획과 진로선택 수립을 준비하는 진로탐색활동을 말한다[31].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로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진로교육이 교과 또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실제로 진로교육은 대부분 진로체험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체험이 진로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0].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에서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 도출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진로체험(career experiences)은 직업체험(vocational experiences)으로부터 파생되었지만 두 용어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외국에서는 직업현장(work environment)에서 직무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직업체험으로 정의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직무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인 경험도 직업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27]. 직업체험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인해 진로체험은 직업체험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진로교육법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을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진로체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진로체험의 형태와 방법으로 구분된다. 진

로체험의 형태는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으로 구분되며, 직접체험은 인턴십, 현장직업체험, 현장견학, 직업체험의 날(부모일터 방문), 직업인 면담, 진로캠프 등이 있고, 간접체험은 직업체험관 견학, 학교에서 직업인 강연, 진로지도 집단 프로그램 등이 있다[28]. 진로체험의 방법은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모의일터 직업체험),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강연형 및 대화형으로 구분된다[29].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체험에 많이 참여한 중학생일수록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으며[30], 진로체험을 실시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성숙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31, 32]. 그리고 진로체험의 형태와 관계없이 직접체험과 간접체험 모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도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또한 직업체험이 포함된 적극적인 진로탐색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한편, 김현철 등(2017)은 2012 PISA 조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 진로체험과 직업역량개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진로체험의 양이 직업역량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진로체험이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직업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36]. 또한 특정 분야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3, 14, 15].

그런데 진로체험은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선택을 준비하는 탐색활동이다. 그리고 진로체험의 효과성은 진로체험의 교육목표에 도달한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진로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업 및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진로계획과 선택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진로체험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진로장벽 및 학업성취의 조절효과

진로선택 및 발달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인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다양한 개인적 및 사회적 경험과 예상되는 환경적 지지와 장벽에 영향을 받는다[17]. 특히,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개인 내부 또는 환경에서 진로발전(career progress)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나 조건으로, 구체적 진로장벽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진로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다르게 인식된다[16]. 진로장벽은 사람이나 환경에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16]. 그러나 진로장벽을 개인적·환경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진로장벽의 개념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요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37].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진로장벽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Luzzo(1995)는 진로장벽을 가족관련 장벽(family-related barriers), 학업기술 장벽(study skill barriers), 성 관련 장벽(gender-related barriers), 인종정체성 장벽(ethnic identity barriers), 재정적 장벽(financial barriers)으로 구분하였으며[38], 손은령과 김계현(2002)은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장벽을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구분하였다[39].

진로장벽은 진로과업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환경적 사건이나 조건으로 진로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7].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경민과 이기학(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고, 독립적 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하는 경로도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그리고 임한려(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가족 및 지인의 반대, 진로정보의 부족, 지식·기술·경험의 부족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처럼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관련 인식과 진로발달 변인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체험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도 부(-)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진로장벽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은 효과적인 진로체험에 참여하더라도 진로장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직업적응과 변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덜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 진로장벽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은 효과적인 진로체험을 통해 개인적인 진로탐색과 준비, 미래에 있을 진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장벽은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것이다. 즉, 청소년이 진로장벽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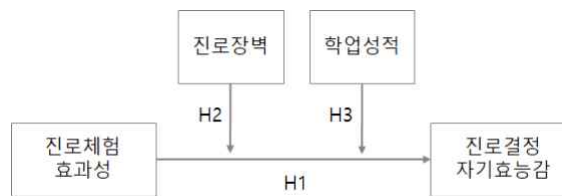
한편,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 중 하나로 수행 성취(performance accomplishments)를 제시하였다[9]. 성취는 개인이 생애 동안 참여해서 달성한 광범위한 사건으로, 특정 분야에서 성취는 다른 관련된 성취를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20]. 청소년기 대표적인 성취 중 하나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이며, 이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일반화된 자기인식의 단서가 되며 진로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에 활용된다[18, 19]. 학업성취는 진로성숙[42], 직업포부[43, 44], 진로결정[3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학업성취는 진로장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45]. 따라서 학업성취를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은 진로선택의 폭이 넓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진로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려 할 것이다. 또한 진로체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면, 본인의 학업성취를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은 진로체험에 참여하여 학습하지만 진로문제를 해결하거나 진로과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덜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학업성취의 조절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청소년이 인식한 학업성취는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할 것이다. 즉, 청소년이 학업성취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성별, 학년, 교육포부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거치면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학생이었으며,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였으며, 인천과 창원 및 제주지역의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청소년센터 진로체험 담당자 등에게 연락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한 뒤, 그들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청소년들에게 배포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383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51부를 제외한 3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여학생 = 39.8%, 남학생 = 60.2%; 2학년 = 44.6%, 3학년 = 55.4%).

## 3. 변수

###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축소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F)’를 활용하였으며[46], 구체적으로 이성식(2007)이 번역한 설문도구를 기반으로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Betz, Klein과 Taylor(1996)의 연구에서는 .94,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94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나. 주요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진로체험 효과성이다.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부(2015)가 제시한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중, 진로체험과 관련된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 영역과 진로탐색 영역의 세부목표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48]. 구체적인 문항으로 “(진로체험을 통해) 직업의 역할을 알고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었다.” 등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는 .948이었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에서 카이제곱 값은 1683.915, 자유도는 45( $p < .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 10개 문항이 진로체험의 효과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약 63.0%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참조).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III-1> 진로체험 효과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공통 변량	요인 적재값
직업의 역할을 알고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었다.	.666	.816
사회변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548	.740
창업(회사설립)과 창직(새로운 직업 만들기)을 이해할 수 있었다.	.640	.800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가치를 탐색할 수 있었다.	.687	.829
직업인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 및 권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624	.790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개선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570	.755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621	.788
고등학교나 대학교 유형과 전공 특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었다.	.551	.742
다양한 방법과 체험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었다.	.736	.858
직업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또는 선별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할 수 있었다.	.661	.813
고유값	6.303	
분산비율(%)	63.02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48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Chi-square	1683.915
	df(p)	45(p<.01)

이 연구의 조절변수는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이다.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Lent 등(2001)이 개발한 맥락적 지지 및 장벽 척도(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를 번역한 노지혜(2018)의 설문 도구를 활용하였으며[49], 일부 문항은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하였다. 진로장벽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노지혜(2018)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90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 다른 조절변수인 학업성취는 현재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현재 귀하의 학업 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1=매우 못함, 2=조금 못함, 3=보통, 4=조금 잘함, 5=매우 잘함).

#### 다.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학년, 교육포부이다. 성별 및 학년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18, 50, 51],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교육포부도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52] 통제변수로 채택하였으며, 교육포부는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기 원하시나요?”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1=고졸, 2=2-3년제 대졸, 3=4년제 대졸, 4=석사, 5=박사).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66	0.677	1.76	5.00
독립변수	진로체험 효과성	3.71	0.736	1.30	5.00
조절변수	진로장벽	2.48	0.694	1.00	4.28
	학업성취	3.11	1.120	1.00	5.00
통제변수	성별(0=여학생, 1=남학생)	0.60	0.490	-	-
	학년(0=3학년, 1=2학년)	0.45	0.498	-	-
	교육포부	2.63	0.980	1.00	5.00

#### 4. 분석방법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소프트웨어(Version 26)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0에서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 성별과 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체험 효과성

〈표 IV-1〉 측정변인 간 이변량 상관 분석 결과(N=332)

구분	1	2	3	4	5	6
1. 성별(0=여학생, 1=남학생)	1					
2. 학년(0=2학년, 1=3학년)	-.014	1				
3. 교육포부	-.014	-.035	1			
4. 진로체험 효과성	.015	-.063	.179**	1		
5. 진로장벽	.012	-.040	-.112*	-.266**	1	
6. 학업성취	.005	.045	.366**	.132*	-.178**	1
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0	-.005	.107	.647**	-.342**	.218**

\* p < .05, \*\* p < .01

은 학업성취( $r=.132, p<.05$ )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647, p<.01$ )과 정(+)의 관계를, 진로장벽( $r=-.266, p<.01$ )과는 부(-)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학업성취( $r=-.178, p<.01$ )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342, p<.01$ )과 부(-)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218, p<.01$ )과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 2.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 $B = .596,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참조). 즉, 진로체험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 3. 진로장벽 및 학업성취의 조절효과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53]. 부트스트랩 표본 5,000개를 추출하여 bias-corrected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진로장벽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012, CI[-.115\sim.091]$ ). 즉,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장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표 IV-3〉 참조).

〈표 IV-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332)

	모형 1			모형 2		
	B	SE	t	B	SE	t
(상수)	3.375	.122	27.758***	1.353	.162	8.359***
성별(1=남학생)	.140	.075	1.856	.125	.058	2.159*
학년(1=3학년)	.001	.074	.008	.050	.057	.886
교육포부	.075	.038	1.987*	-.004	.029	-.151
진로체험 효과성				.596	.039	15.255***
R <sup>2</sup>	.022			.428		
adj R <sup>2</sup>	.013			.421		
ΔF	2.431			232.710***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332)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1.874	.533	3.514**	.825	2.924
성별더미	.128	.056	2.275*	.017	.239
학년더미	.036	.056	.640	-.074	.145
교육포부	-.013	.029	-.467	-.070	.043
진로체험 효과성	.583	.135	4.305***	.317	.850
진로장벽	-.134	.201	-.668	-.530	.261
진로체험 효과성 × 진로장벽	-.012	.052	-.229	-.115	.091

\* p < .05, \*\* p < .01, \*\*\* p < .001

동일한 방식으로,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학업성취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094, CI[-.162~-0.027]). 즉,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성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V-4> 참조). 다만, 청소년이 인식한 학업성취는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체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IV-4〉 학업성취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N=332)

구분	B	se	t	LLCI	ULCI
(상수)	.136	.423	0.321	-0.697	0.968
성별더미	.124	.056	2.208*	0.014	0.235
학년더미	.042	.056	0.751	-0.068	0.151
교육포부	-.045	.031	-1.475	-0.105	0.015
진로체험 효과성	.880	.114	7.753***	0.657	1.104
학업성취	.442	.130	3.408**	0.187	0.697
진로체험 효과성 × 학업성취	-.094	.034	-2.745**	-0.162	-0.027

\*p < .05, \*\*p < .01, \*\*\*p<.001

학업성취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설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인식한 학업성취가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학업성취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학업성취의 조건부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업성취에 따라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탐색한 결과, -1SD 수준(B=.693, p<.001), 평균(B=.588, p<.001), 1SD 수준(B=.483, p<.001)에서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 참조).

〈표 IV-5〉 학업성취의 조건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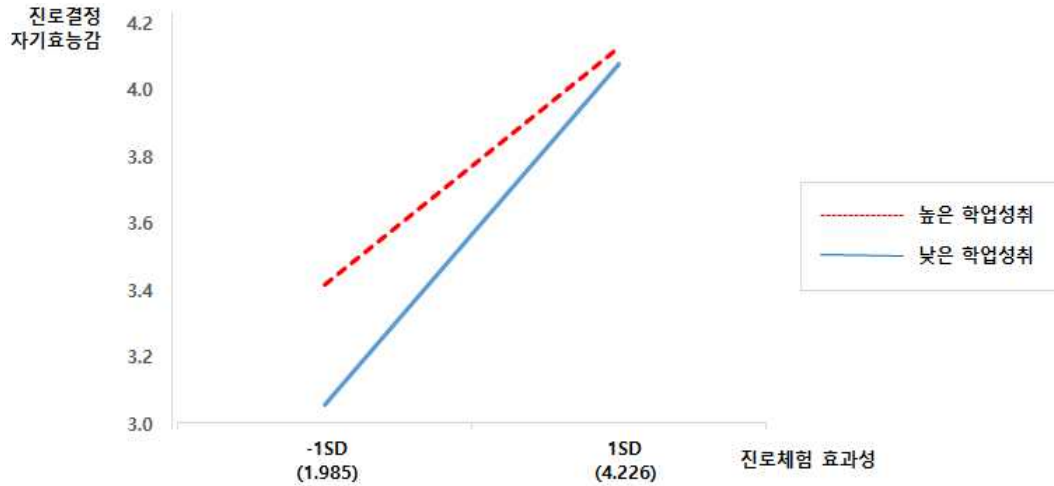
학업성취	B	se	t	LLCI	ULCI
-1SD(1.985)	.693	.055	12.722***	0.586	0.801
M(3.105)	.588	.038	15.389***	0.513	0.663
1SD(4.226)	.483	.054	8.968***	0.377	0.589

\*p<.05, \*p<.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이를 보면, 학업성취를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 효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가장 높은 점수의 비중이 30%이상인 문항은 전체 25개 중 3개에 불과했으며, 전체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기에 천장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정(+)적 관련성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진로체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IV-1) 학업성취의 조절효과 검증 그래프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고,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과 창원 및 제주 지역의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32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학년, 교육포부를 통제함으로써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진로장벽과 학업성취의 조절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30, 32, 33, 34]과 유사한 결과이다.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진로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0]. 최근, 진로체험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른 형태의 진로교육에 비해 참여만족도가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체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12]. 따라서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과 운영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편, 기존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11], 이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 진로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청소년전문가의 역량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진로장벽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을 말한다. 이는 선행 연구들[40, 41, 54]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사할 직업 및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진로선택 사회인지모형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선택의 시점에 작용하는 근접맥락요인(contextual influences proximal to choice behaviors)으로써 진로목표 및 활동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흥미와 진로목표의 관계 및 진로목표 선택과 활동선택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정 직업을 준비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가정이나 사회적 장벽을 인식하게 되면 효과적인 진로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준비하거나 결정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이후 시기인 반면, 중학교 시기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로장벽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시급히 결정해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55]. 한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이 인지한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56, 57, 58, 59]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진로체험의 효과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는 진로체험 이후에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춰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직업결정 등으로 인한 결과인지,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로 인한 결과인지는 후속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학업성취가 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학업성취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은 진로체험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라는 통념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성취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진로체험을 효과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1977)에 따르면, 개인이 처음 인식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활

동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활동을 지속하면, 숙달의 경험(experiences of mastery)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더욱 향상되고 이에 따라 방어행동이 감소한다[9]. 진로체험은 기존의 교과와 지식 중심의 교육을 넘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활동 및 개인적인 성찰을 추구한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성취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효과적인 진로체험에 참가한다면 숙달의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그 변화량은 학업 성취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청소년 진로교육의 실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은 연구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인천과 창원 및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엄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모든 변인에 대한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서 수집되었기에 연구결과가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거나 조사시점을 다르게 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진로체험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변수의 특성상 시간적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단적으로 설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세 가지 인지적 개념 중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진로체험이 나머지 두 가지 인지적 개념인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와 개인적 목표(personal goal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한 진로체험 효과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진로장벽과 학업성취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진로장벽과 학업성취 이외에도 조절효과를 가지는 개인 및 환경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발전적인 진로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Rojewski, J. W., & Hill. R. B. (2017) A Framework for 21st-Century Career Technical and Workforce Education Curricula,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92(2), 180-191.
2.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3.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4.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1), 13-19.
5.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Kim, S.R, Lee, J.C. (2007).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93-407.)
6. 백인선, 정기수 (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57-477. (Baek, I.S, Jung, K.S.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457-477.)
7.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Yang, J.H, Kim, B.H. (2008).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2), 57-71.)
8.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 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Lee, K.H, Lee, H.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9.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10.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연구 I. *한국청소년정*

- 책연구원. (Kim, H.C, Baek, H.J, Lee, J.Y (2016).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n Career Experience Activity of Asian Youth 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jong, Republic of Korea)
11.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 (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55-171. (Jung, C.Y, Jeong, J.C, Lee, J.B, Jeong, D.Y, Lim, H.S, Lee, S.J, Lim, J.H. (2015). Career Education in South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155-171.)
  12. 교육부 (2022.1.18.).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Ministry of Education (2022.1.18.). Announcement of the 2021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 Results)
  13. 박가열 (2008).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15-130. (Park, K.Y (2008). The Effect of Work-based Experiential Learning on Career Plan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3), 115-130.)
  14. 안미선, 정성지, 이민지 (2014). 중학교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8(5), 134-143. (Ahn, M.S, Chung, S.J, Lee, M.J. (2014). Effects of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Self-Efficacy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Career,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5), 134-143.)
  15. 윤태일, 김경희, 신소영 (2014). 중학생의 미디어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4), 167-185. (Yoon, T.I, Kim, K.H, Shin, S.Y. (2014). The Influences of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4), 167-185.)
  16. Swanson, J. L., & Woia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17. Lent, R. W., Brown, S. D., Sheu, H-B., Schmidt, J., Brenner, B., Gloster, C. S., et al.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84-92.
  18.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19. Howard, K. A. S., & Walsh, M. E. (2011). Children's conceptions of career choice and attainment:

- Mode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8(3), 256-271.
20. Sharf, R. S. (201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김진숙, 김정미, 서영숙(역). (2016).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 박학사.
  21.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2. Lent, R. W., & Brown, S. D. (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12-35.
  23.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Kim, Y.H, Ahn, H.N. (2012). The literature review on career developme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social-cognitive care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4), 1-18.)
  24. Bieschke, K. (2006). Research self-efficacy beliefs and research outcome expectation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cientifically minded psychologis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77-91.
  25.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26.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Jung, A.K, Kim, K.H, Kim, D.M. (2008). A Meta-Analysis on the Studies of Career Indecis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551-564.)
  27. 한상근 (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4), 19-38. (Han, S.G. (2009). An analysis of clients needs participating in work experience program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4), 19-38.)
  28. 이지연, 윤수린, 유미애, 양정은, 강민우 (2014). 안전한 진로체험 안내서: 교사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ee, J.Y, Yoon, S.L, Yoo, M.A, Yang, J.E, Kang, M.W. (2014). *A Guide to Safe Career Experience: For Teacher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9. 김승보, 신지연, 홍정희 (2017). 2017 진로체험 매뉴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im, S.B, Shin, J.Y, Hong, J.H. (2017). *Career experience manual*. Ministry of Educ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30. 전영옥, 김태한 (2020). 진로체험활동과 교사와의 진로대화가 중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109-128. (Jeon, Y.U, Kim, T.H. (2020). Effects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Career Conversation with Teachers on Career Decis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2(3), 109-128.)
  31. 김민경, 김나라, 박나실, 방혜진 (2021). 중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성과. *THE HRD*

- REVIEW 24(3), 150-169. (Kim, M.K, Kim, N.L, Park, N.S, Bang, H.J. (2021). Current status and outcomes of secondary school career education. THE HRD REVIEW 24(3), 150-169.)
32.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67-92. (Sim, J.H, Oh, J.A, Cho, O.S. (2017). Career Education &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Career Maturity Improvement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2(4), 67-92.)
33. 김기현, 유흥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Kim, K.H, Yoo, H.J, Oh, B.D. (2014). The Effect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3), 19-36.)
34. 허은정, 윤지영 (2021). 초·중·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영향요인 탐색을 위한 다층모형 분석. 교육학연구, 59(1), 1-25. (Hurr, E.J, Yoon, J.Y. (2021). Multi-level model analysi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1), 1-25.)
35. 임한려, 홍성표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활동이 학업 및 직업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34(2), 69-91. (Lim, H.R, Hong, S.P. (2021). Analysis of the effects of out-of-school youth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on academic and vocation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4(2), 69-91.)
36.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7).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H.C, Baek, H.J, Lee, J.Y (2017).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n Career Experience Activity of Asian Youth 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jong, Republic of Korea)
37.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38.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3), 319-322.
39.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Sohn, E.R, Kim, K.H. (2002). The Factor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121-139.)
40. 허경민, 이기학 (2018). 대학생의 독립적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909-930. (Heo, K.M, Lee, K.H. (2018).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 Career Optimism: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Perceived External Career Barrie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909-930.)
41. 임한려 (2019).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Lim, H.R. (2019).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Factor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42. 김정원, 김옥인 (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Kim, J.W, Kim, O.I. (2007).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4), 75-82.)
  43. 하문선, 김지현, 김복환 (2014). 후기 청소년 직업포부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 요인. *상담학연구*, 15(4), 1495-1513. (Ha, M.S, Kim, J.H, Kim, B.H. (2014). Longitudinal changes of late adolescents' job aspiration and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4), 1495-1513.)
  44.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Hwang, M.H, Park, E.H, Yoo, S.K. (2006).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n the Change of the Academically Talented and Regular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4), 1137-1152.)
  45. 공인규, 정홍식, 안창규 (2007). 학업성취에 따른 진로장애요인의 비교 분석. *청소년학연구*, 14(1), 127-154. (Kong, I.G, Jeong, H.S, Ahn, C.K. (2007). Analysis of Career Barrier factors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Level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1), 127-154.)
  46.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47.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Lee, S.S. (2007).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48. 교육부 (2015). 학교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Ministry of Education. (2015). School career education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49. 노지혜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관련변인 분석: 진로장벽, 진로활동, 진로성숙을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Noh, J.H. (2018). study on out-of-school youth with career barriers, career activities, career maturity(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50. Hackett, G., & Betz, N.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51. 정은선, 임은미 (2019). 고교시절 진로체험 횟수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진로체험 도움정도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2(4), 289-306. (Jeong, E.S, Lim, E.M. (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Experience's Effect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erience Frequency in High Schoo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4), 289-306.)
52. 임효진, 김정수 (2017). 진로성숙도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포부와 독서활동의 동시지연효과. *초등교육연구*, 30(1), 147-168. (Lim, H.J, Kim, J.S. (2017). Th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Educational Aspiration and Reading Activities relating to Changes of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0(1), 147~168.)
53.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54. 황정희, 김영택, 이석근 (2018).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정책학회*, 25(1), 157~179. (Hwang, J.H, Kim, Y.T, Lee, S.G. (2018). An effect of perceived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 servi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Korean Journal of Public Policy*, 25(1), 157-179.)
55. 이동혁 (201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진로장벽의 역할 예측변인 또는 조절변인. *상담학연구*, 12(1), 59-80. (Lee, D.H. (2011). Roles of Career Barriers in Career Decision-Making: Predicting Variable or Moder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1), 59-80.)
56. 김봉환 (2007). 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지각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4), 1453-1465. (Kim, B.H. (2007). The Effects of Group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4), 1453-1465.)
57. 김수란, 정미경 (2014).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이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6(3), 409~433. (Kim, S.R, Chung, M.K. (2014). The Effect of College Career Course on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3), 409~433.)

58. 김은희, 김봉환 (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25-2239. (Kim, E.H, Kim, B.W. (2009). The Effects of 「Break Down The Women's Career Barriers Counseling Program」 o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s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225-2239.)
59. 하 정 (2018). 기업 진출을 희망하는 여대생을 위한 진로장벽대처역량강화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489-512. (Ha, J. (2018).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Career Barrier Coping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ho want to work for a compan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489-512.)